

“저금리 갈아타세요?... 일단 의심해야”

제주경찰 올해 발생 보이스피싱 786건 분석 대환대출 미끼 등 대출사기가 전체 88% 차지 “우대 금리 상품으로 현혹한 뒤 대출신청 유도”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내건 대출 사기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다수는 금융거래가 많은 40~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접수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786건으로, 이중 335건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62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건수는 지난해 565건에서 37.1% 줄었지만, 범죄 1건당 평균 피해액(1760만원)은 오히려 늘어 전년보다 19.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대출사기가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다. 경찰, 금융감독원, 검찰 직원 사칭 등 일반인들이 주로 알고 있는 ‘기관 사칭형’은 12%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대출

사기는 기존 받은 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우대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보이스피싱범은 이번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계약 위반 또는 금융거래법 위반을 들먹이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다. 경찰은 평소 금융 거래가 많은 40~50대가 이같은 대출 사기에 가장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9.2%, 50대가 29%로 40~50대가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3.2%) 20대 이하(10.4%), 60대(7.4%), 70대 이상(0.8%)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금융 거래가 활발한 40~5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 종사자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기존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 등 광고 문자 또는 대출을 위해 은행·캐피탈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전화번호 발신번호가 조작돼 표시되거나, 피해자가 가는 전화는 모두 범인이 받기 때문에 악성코드 설치 사실을 알면 즉시 다른 전화를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환청 듣고 강도 50대 실형

살인죄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흉기 강도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B(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판정이 되면서 제주도가 22일 드론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하도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고병원성 최종 판정... 도, 3km내 특별관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22일 최종 확진 판정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예찰지역 내 27개 농가의 닭 77만 7000수, 오리 2만수는 이미 21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울레곶·남시곶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 예정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통신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내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진다. 21일 경과 후인 12월 8일부터 닭

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 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채취지점에 가금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왔다. 지난 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환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27곳(닭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 7000수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 잇따라

화재발생 5건중 1건 주택 원인중 부주의의 38% 최다

지난 주말 가스레인지·휴대용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 등 주택 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3층에서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자체진화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43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단독주택에서도 휴대용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A(71·여)씨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내부가 일부 소실되고 휴대용 버너·커피포트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약 18.7%를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선 총 453건(제주시 256·서귀포시 19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야외 88건, 단독주택 54건, 자동차 48건, 창고시설 38건, 기타 건축물 32건, 공동주택 31건, 음식점 30건 등이다. 발화 요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73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147건, 원인 미상 47건, 기계적 요인 31건 등이 뒤이었다. 지난해에도 주택 화재는 전체의 약 20.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도내에서 총 607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발생 장소 별로는 야외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75건, 들불·자동차 68건, 공동주택 49건 등이다. 발화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83건, 원인 미상 56건, 기계적 요인 34건 등이다. 강다혜기자

애월읍 평화로서 차량 충돌로 2명 숨겨

제주시 애월읍 제주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 사진

21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3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어음1교차로 인근 평화로 상에서 A(70)씨가 운전하던 대형 택시와 B(48·여)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도로 옆 연석을 넘어 전복됐으며, 대형 택시



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면서 서귀포시 방면 평화로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제주시 관내 1만6000곳 대상

제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생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1만6062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달간의 제도 기간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마스크 미착용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은 유흥시설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 982개소), 목욕탕·사우나(93개소), 이·미용업소(1975개소),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관리(전자 또는 수기)가 의무사항이다.

유흥시설은 이들 의무사항과 함께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도 지켜야 한다. 또 150㎡ 이하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1만3012)도 마스크 착용과 1일 1회 이상 환기·소독을 해야 한다. 문미숙기자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초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회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an.com

당일생선! 당일발송!

동영 청정바다 생굴

만들 수 있는 동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중도매인23번!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부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동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동영굴이 택배로 배송된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
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

2021년도 한라일보 갤러리ED
대관계획 공고

한라일보 갤러리ED에서는 미술 분야의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대관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대관진행 절차

사전 문의	대관 신청서 접수	대관 심의 적정 여부 및 일정 조정	대관 여부 통보	대관 계약 체결
-------	-----------	---------------------	----------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층

대관문의
064)750-2543

Gallery ED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우수미장 가식, 청진가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